

정보문화의 달 제정

정보사회에 대한 인식제고와 정보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가 제정한 6월 「정보문화의 달」을 맞아 각종 기념행사가 개최된다.

정보문화에 대한 이해증진과 대중화 촉진을 위해 전개되는 이번 행사는 학술·강연·전시·공모행사 등 내용이 다채롭다.

그밖에도 정보문화관련 홍보영화와 책자가 제작 배포될 예정이다.

〈사진은 컴퓨터 생활화를 위한 광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DACOM PLAZA.〉



▼ 지난달 11~13일에 있었던 연세대학교 컴퓨터 클럽의 소프트웨어 전시회.



「미래 전산인」들의 솜씨 자랑

연세대학교를 비롯한 10여개 대학의 전산학도들이 축제기간을 이용, 「컴퓨터전시회」를 열어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전산싸클 학생들의 주최로 마련되는 각 대학의 전시장에는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 「Time Table」·「컴퓨터단어장」등 학업과 관련한 내용의 프로그램과 기존의 것을 수정 보완한 소프트웨어가 전시됐다.

한편, 자체개발한 하드웨어 「마우스」·「Ram Writer」등도 전시됐다.



심볼마크 당선작 시상식

협회 창립 1주년 기념 심볼마크 및 로고체 공모 당선작 시상식이 지난달 18일 협회 회장실에서 있었다.

金志柱 회장은 이날 당선자 黄仁求 씨에게 상금 1백 20만원과 상패를 수여했다.

▶ 심볼마크 및 로고체 공모에서 당선한 黄仁求씨(좌)에게 金志柱 회장이 상패를 수여하고 있다.